

뉴스 라운드업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006%(+0.8bp) 마감, 장중 5.041%까지 오르며 2007년 이후 최고치 경신 —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인상 확률 99% 반영
- WTI 국제유가 4.38% 급등한 105.83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광범위 안보경보·후티 공격 등 중동 공급 우려 반영
- 뉴욕증시 3대지수 동반 하락(S&P500 -0.45%, 나스닥 -0.78%)에 미국 하이일드 스프레드도 +6bp 확대 — 크레딧시장까지 위험회피 동조
- 금값 소폭 하락(-0.10%), 달러 강세·금리 상승이 중동발 안전자산 수요를 상쇄

FOMC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다시 찍었고, 중동발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 우려를 더 자극했다

오늘(9/16)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국 국채시장은 매파적 프라이싱을 한층 강화했다. 10년물 금리는 장중 5.041%까지 오른 뒤 5.006%(전일비 +0.8bp)로 마감해 2007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30년물도 장중 5.401%까지 터치하며 같은 해 이후 최고치를 다시 썼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이번 회의에서 25bp 이상 인상 확률은 99%에 달해, 시장은 이미 인상을 기정사실로 반영하고 있다. 독일 10년물 금리도 3.540%(+1.2bp)로 17년래 최고치를 이어가며 유럽 국채시장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 초 이미 매파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도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닛 옐런이 아닌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국채금리 상승 배경을 '글로벌 요인들' 때문이라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국채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유가 급등이 자리한다. WTI는 4.38% 오른 배럴당 105.83 달러로 마감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주일간 이어진 공격 이후 메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안보경보를 발령했고 후티 반군이 예멘 서부 해안 통제를 유지하며 드론·미사일 공격 수위를 높인 점이 공급 우려를 키웠다. 러시아 디젤 생산 정유시설 절반가량이 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축소·중단했다는 소식도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더했다. 이런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해 국채금리 상승과 연준 인상 베팅을 서로 강화하는 고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며,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란과의 전쟁 비용이 현재까지 약 380억 달러에 달하고 매달 30억 달러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면서 2027년 1분기 물가를 0.5%포인트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혀 재정·물가 양면의 부담을 시사했다. 다만 금 가격은 이런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0.10% 소폭 하락했는데,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 안전자산 수요를 상쇄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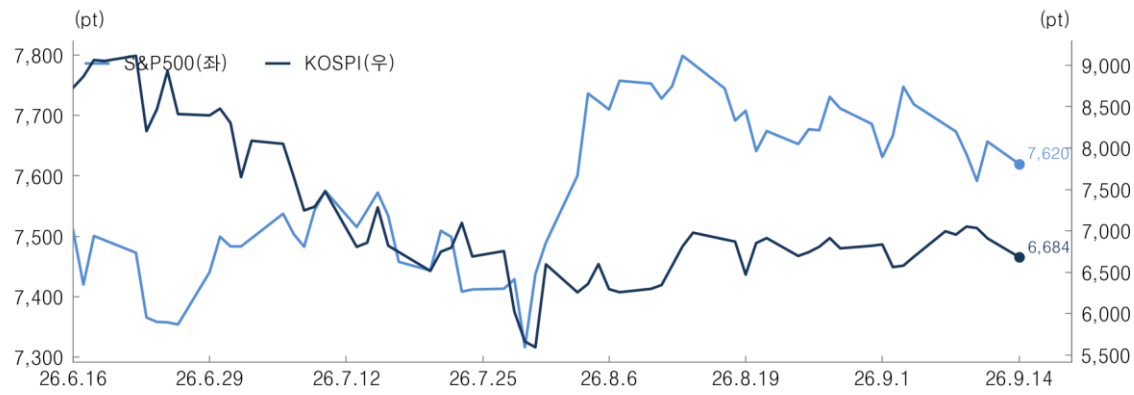
뉴욕증시는 국채금리 급등과 유가 상승 부담에 S&P500(-0.45%), 나스닥(-0.78%)이 동반 하락했고 유럽 STOXX600도 0.28% 밀렸다. 특히 그간 위험회피 신호와 다소 엇갈려 움직이던 미국 하이일드 스프레드가 이날 6bp 확대되며 방향을 같이하기 시작한 점은, 최근 며칠간의 매도세가 단순 포지셔닝 조정을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하는 첫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하우스 뷰상 스태그플레이션·완만한 위험회피 국면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전일 코스피(-0.85%)·항셍(-1.00%)·CSI300(-0.67%) 등 아시아 증시 낙폭은 미국 장 마감 이후 벌어진 밤사이 금리·유가 급등 이전에 이미 확정된 수치로, 이번 이벤트에 대한 반응은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확인될 부분이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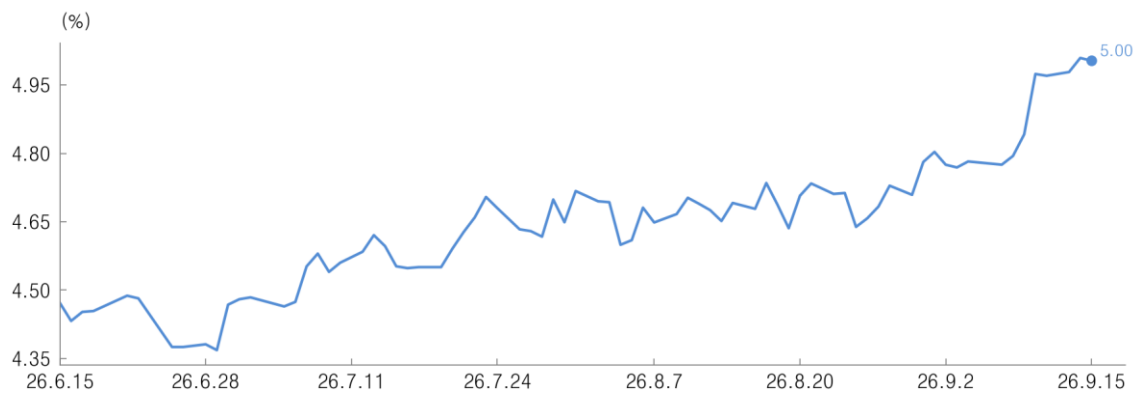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585.73	-0.45%	9/15 종가
	나스닥	25,981.56	-0.78%	9/15 종가
	STOXX 600	634.19	-0.28%	9/15 종가
	닛케이 225	63,483.88	-0.01%	9/15 종가
	CSI 300	4,450.04	-0.67%	9/15 종가
	KOSPI	6,627.26	-0.85%	9/15 종가
	항생	24,667.24	-1.00%	9/15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65	+0.18%	9/15 종가
	달러/엔	155.10	+0.02%	9/16 종가
	유로/달러	1.15	-0.08%	9/16 종가
	달러/원	1,363.18	+1.21%	9/15 종가
	달러/위안	6.71	+0.04%	9/15 종가
금리	미국 10 년	5.006%	+0.8bp	9/15 종가
	미국 2 년	4.671%	+0.3bp	9/15 종가
	일본 10 년	3.041%	+4.2bp	9/15 종가
	독일 10 년	3.540%	+1.2bp	9/15 종가
	한국 10 년	4.588%	+5.6bp	9/15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71bp	+6.0bp	9/14 종가
원자재	WTI	105.83	+4.38%	9/15 종가
	금	4,293.34	-0.10%	9/15 종가
	구리	6.44	+0.61%	9/15 종가
변동성	VIX	17.19	+0.47%	9/15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21 건 HIGH	• 미국 10 년물 국채 수익률 5% 돌파, 2007 년 이후 최고, 글로벌 차입자 부담 심화 ↳ 10 년물 수익률이 어제 새벽 5.041%까지 급등하며 2007 년 이후 최고 기록, 오늘 연준 금리 인상이 가격에 선반영돼 있음 ↳ G7 10 년물 평균도 2008 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으로 고채무 국가·기업의 차입비용 급상승 ↳ 유가 강세(\$105~\$108 범위)와 견조한 경제 성장 간 긴장 심화, 인플레이 우려와 채무 상환능력 압박이 동시 발생 • 글로벌 주식 약세 지속, 중동 분쟁·고유가가 낙폭 견인 ↳ 글로벌 주식이 전일 낙폭 이어가며 약세 지속, 미국-이란 분쟁 장기화 우려로 유가 추가 상승 및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 대두 ↳ 캐나다 메인 지수(S&P/TSX) -0.67% 하락, 에너지 섹터 제외 광범위 약세 • 캐나다, 신규 자본투자 즉시 상각 허용, 미국 무역전쟁 속 외자 유치 시도 ↳ Carney 총리가 신규 자본 투자 대부분(전체 자산의 약 3 분의 2)에 대한 즉시 상각(expensing) 허용 발표 ↳ 기계류·소프트웨어·특허·R&D·통신망·철도·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자산 포함 ↳ 160 개 주요 프로젝트 투자 유치 목표, 미국과의 무역분쟁 속 경제 강화 의도 • 달러 광범위 강세, 미 국채 수익률 급등에 주요 통화 약세 ↳ 미국 10 년물 수익률 급등에 따른 달러 매력도 상승으로 광범위 강세, 유로는 1 개월 저점, 뉴질랜드달러는 2 개월 저점 경신 ↳ 호주달러 0.7132 수준(-0.12%), 연준 금리 인상 기대가 선반영되며 고위험 통화 동반 약세 ↳ 금은 상대적 약세, 비트코인(BTC)은 고금리 기대에 큰 폭 하락 • 이스라엘 8 월 인플레이션 1.5% 유지, 5 년 최저 지속, 추가 인하 가능성 ↳ 8 월 연간 인플레이션 1.5% 유지(기대치 1.6% 하회), 정부 목표 범위(1~3%) 내, 2 개월 연속 5 년 최저 유지 ↳ 이스라엘은행 금융통화위원회 5 명 중 4 명이 9 월 1 일 기준금리 인하(3.5%→3.25%) 지지, 10 월 21 일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
미국 뉴스 64 건 HIGH	• 미국 10 년물 채권 수익률 5.041%로 2007 년 7 월 이후 사상 최고 기록 ↳ 30 년물 수익률도 5.401%로 2007 년 6 월 이후 최고, 20 년물 경매 배수 2.57 배는 평균(2.73 배) 하회로 채권 수요 약세 시사 ↳ 시장이 연준의 9 월 16 일(수) 25bp 인상 가능성을 92.7~95%로 반영, 선제적 채권 매도 진행 중 ↳ 8 월 소비자물가(CPI) 전월비 +0.4%(7 월 +0.1%), 코어 CPI 전년비 2.4%(7 월 2.5%), 강한 인플레이션이 장기금리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연준 수요일 25bp 인상 사실상 확정, 글로벌 주요 브로커들도 향후 4~6 개월 누적 100bp 인상 예상 ↳ Goldman Sachs, JPMorgan, Morgan Stanley 등이 9 월 15-16 일 기준금리 25bp 인상 공표 ↳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4~6 개월 누적 인상폭을 100bp(1%)로 추산(연준 의장 Kevin Warsh, 결단의 순간에 직면)

권역	요약
	↳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를 선호하지만 실물 인플레이션 압력에 밀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 금값 8 월 이후 최저 근처인 \$4,289~\$4,293/온스로 약세, 높은 금리·달러·유가 랠리 삼중 압박 ↳ 높은 장기금리(5% 돌파), 달러 강세, 실질금리 상승의 복합 작용으로 -0.1~0.2% 약세 ↳ 유가 급등(브렌트유 \$107~\$109/배럴)이 인플레이션 상승 및 금리 인상 기대로 이어지면서 금의 상대적 매력에 급격히 약화 • 이란 전쟁 비용 \$380 억으로 확대, 월 \$30 억씩 추가로 2027 년 인플레이 0.5%p 악화 전망 ↳ 미국 의회예산청(CBO) 발표, 지난 6 개월간(8 월 1 일 기준 누적) 전쟁 관련 비용 현황 ↳ 2027 년 첫 3 개월 소비자물가를 0.5%포인트 상승 압박할 것으로 예측(정부 긴급 지출 확대) ↳ 무기·탄약 재보충에 5 년이 필요해 공급망 긴장 장기화 가능성(대량 정부 수요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 뉴욕 지역 9 월 Empire State 경기 지수 +7.6 으로 급락, 예상과 전월 모두 크게 하회 ↳ 현재 사업경기 조건 지수가 전월 +20.6 에서 +7.6 으로 급락, 시장 컨센서스(+15.0)를 약 20 포인트 하회 ↳ 높은 금리 환경과 중동 지정학 긴장이 뉴욕 지역 제조업·서비스업 심리를 동시에 악화시킨 신호 • 달러 전방위 강세로 엔화 155 근처(1 주일 만에 최약), 장기금리 상승·연준 인상 기대가 주요 배경 ↳ JPY/USD 는 미국채 수익률 5% 돌파와 연준 인상 압박에 따른 달러 매수세 확대에 가속 ↳ 미 재무장관 Scott Bessent, 달러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정부 차원의 강달러 입장) • 글로벌 주식 약세 심화, 미국 장기금리 최고·유가 급등·중동 긴장의 복합 영향 ↳ 미국 지표: 다우 -0.63%, S&P -0.45%, 나스닥 -0.78%(월요일 약세에 이은 연속 하락) ↳ 유가 브렌트유 \$107~\$109/배럴로 급등(사우디아라비아 보안 우려 및 공급 차질, 리비아 생산 가동 중단) ↳ 글로벌 채권 동반 매도 심화(독일 국채 Bund 도 2009 년 이후 최고 수익률 기록),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연쇄 우려 확산
유럽 뉴스 16 건 HIGH	• 유로존 장기금리 17 년 최고 경신, EU 채권 발행 비용 2020 년 이후 최대 ↳ 독일 10 년물 수익률 3.572% 기록(2009 년 이후 최고) ↳ 중동 갈등을 배경으로 한 유가 급등 및 미국 장기금리 상승 ↳ 연준 9 월 인상 기대 강화 및 달러 강세로 추가 압력 • UniCredit CEO 오르첼, Commerzbank 경영진 퇴출 요구, 독일 정부와 충돌 ↳ CEO 오르첼, 의장 바이드만 퇴출 요구 ↳ 베를린의 감시위원회 2 석 유지 요구와 이견 심화 ↳ Commerzbank 상장 유지·프랑크푸르트 본사 조건에 독일 정부 입장 • 프랑스은행, 2026 년 성장률 전망 0.4%로 하향, 소비 약화·지정학 불안 ↳ 6 월 전망 0.5%에서 0.4%로 하향(3 분기 성장률 0.1% 수준)

권역	요약
	↳ 소비 부진, 기업 투자 위축, 에너지 가격·재정 불확실성·지정학 긴장이 배경 ↳ 인플레이 2027년부터 2% 이하로 둔화 전망 • 유럽 STOXX 600 3개월 최저, 금융주 주도 하락, 금리·유가 상승 영향 ↳ STOXX 600 634.18 포인트(6월 12일 이후 최저) ↳ 은행·금융주 주도 하락, UBS 약세 선두 ↳ LVMH 제치고 로레알이 프랑스 최대주로 순위 변경 • ECB 차기 총재 놓고 프랑스-독일 입장 엇갈림, 네덜란드 크눛 후보 부상 ↳ 프랑스,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클라스 크눛을 ECB 차기 총재 후보로 추천(마크롱 지지) ↳ 대가로 프랑스인 수석경제학자 선임 조건 ↳ 독일의 강한 저항 예상, ECB 최상위 직책 배분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 • 파운드화 약세 지속, 연준 인상 기대·유가 상승으로 달러 강세 ↳ 연준 9월 25bp 인상 시장 가격 반영(수요일),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 제기 ↳ BoE는 9월 인상 가능성 낮음(11월 이후 검토 예상) ↳ 영국 8월 CPI 수요일 발표(예상 3.1%), 파운드 방향성에 영향 • 프랑스 다업종 파업, 보조금 삭감·임금 현안 놓고 저항 ↳ 전력(EDF), 가스, 운송 등 다업종 파업 참여 ↳ 정부 건축 예산(보조금 감액)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항의 ↳ EDF 파업으로 발전량 제약, 던커크 LNG 터미널 공급 중단 • EU 의회, 탄소국경세 긴급 제동장치 폐지 의결, 회원국과 입장 상충 ↳ 수입품 가격 상승 시 탄소국경세 일시 중단 권한 삭제 ↳ 대신 수입 가격 인상 시 산업 보상 제도 제안(철강·비료·알루미늄 대상) ↳ EU 회원국은 긴급 제동장치 유지 선호, 입법 과정에서 후속 협상 예상
인도 뉴스 9 건 HIGH	• 정부채 급락, 10년물 수익률 4개월 고점 7.07% 기록, RBI 매도·글로벌 약세 동시 압력 ↳ 브렌트유 \$106/배럴로 상승(결프전 확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5.03%(2007년 이후 수준) 테스트로 글로벌 채권 매도 가속 ↳ 인도 6.94% 2036년물 채권(IN069436G=CC) 수익률 +5bps 상승해 7.0727% 기록 • 8월 무역수지 적자 -\$26.86bn으로 축소(7월 -\$31.98bn), 금 수입 급감이 주요 요인 ↳ 금 수입 반감: \$2.3bn(8월) vs \$4.16bn(7월) ↳ 수출 소폭 둔화: \$43.81bn(8월) vs \$44.24bn(7월) • 7월 국제수지 흑자 +\$20.8bn으로 급증(전년동월 +\$0.3bn), 자본수지 강세 주도 ↳ 경상수지는 -\$7.0bn 약화(전년동월 -\$3.2bn), 외국인 포트폴리오·외환 유입 등 자본수지 강세가 전체 흑자 견인 ↳ 해외 송금 \$13.2bn(7월) vs \$12.6bn(전년동월) • 8월 실업률 5%로 6개월 저점 기록(전월 5.1%, 설문 예상 5.2% 상회) ↳ 농촌 실업률 4.1%(7월 4.5%), 1월 이후 최저 수준 ↳ 도시 실업률 6.8%(7월 6.7%), 소폭 상승 • 식품 인플레이션 연말까지 완화 전망, 경제 고문 '8월 약 6% 수준 지속은 어려울 것'이라 진단

권역	요약
	↳ 몬순 강우 부족(15%)은 관리 가능, 여름 작물 파종 전년 대비 2~3% 저조 ↳ 식품·음료가 소비자물가 바구니의 36.75% 점유로 인플레이션 경로에 중요
EM 기타 뉴스 17 건 HIGH	• 앙골라 기준금리 100bp 인하해 14.75%로 하향(인플레이션 한 자릿수 진입) ↳ 5월 50bp, 7월 125bp에 이어 연속 3개월 금리 인하 추진 ↳ 8월 연간 인플레이션 8.78%로 10년 이상 만에 처음 한 자릿수 수준 도달 ↳ 유가 수출국으로서 상품 가격 변동성은 지속하나, 중앙은행 물가 관리 효과 입증 • Yemen Houthis, 사우디 동맹군 격파하고 홍해 해안 추가 점령, 10만 명 이상 국내 실향민 ↳ Iran 지원 민병대의 신속한 공세로 사우디 동맹군 영토 상실, 새로운 전선 확대 ↳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다수 피해, UN 발표 기준 10만 명 이상 국내 실향민 발생 ↳ Saudi Arabia, 메카·제다 등 광범위 지역에 보안 경보 발령 • Russia 주요 정유소 절반 가동 중단·감산, Ukraine 드론 공격으로 디젤 공급 위기 ↳ 상위 6대 정유소 중 3곳 손상: Kirishi 전면 폐쇄, Volgograd·NORSI 약 25% 가동 ↳ Russia 디젤 생산량의 약 50% 차질로 국내 연료난 심화 및 세계 공급 긴장 가능성 ↳ Trump 미국 대통령이 Ukraine에 Russia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 촉구 • Russia-Ukraine, Trump 합의 발표 후에도 쌍방 에너지 시설 공격 지속 ↳ Russia, 키이우 주유소 공격으로 민간인 2명 사망, 항만·에너지 시설 손상 ↳ Ukraine, Syzran 정유소 및 Taganrog·Oryol 드론 기지 공격으로 보복 ↳ Ukraine 측, 자국의 보복 공격을 중단하기 전에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Trump 합의를 사실상 거부 • Senegal, IMF와 신규 지원 프로그램 협상 진전, 빠른 체결 목표 ↳ Faye 대통령과 Georgieva IMF 총재 회담으로 협상 진전 인정 ↳ 양측 모두 신규 지원 프로그램의 조속한 체결 방침 제시 • Russia, 미국 우주 무기 배치 인정에 반박, 궤도 전쟁 위험 경고 ↳ Russia 외무부, 미국의 우주 무기 배치가 인류에 미칠 재앙적 결과를 외면한다고 비판 ↳ Zakharova 대변인, 미국의 우주 무기가 궤도 활동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공식 성명 • NATO Italy 전투기, Lithuania 영공에서 드론 격추, 러시아발 가능성 높음 ↳ Italy 방위부, 격추 드론이 '러시아에서 거의 확실하게 왔다'고 발표 ↳ 드론은 Belarus를 경유해 Lithuania 영공 진입 후 남부 Pratkunai 근처에서 격추 ↳ Russia는 사건에 대한 즉각적 입장 미표명 • Gulf 주가 하락, Houthi 공격 및 호르무즈 해협 해운 침체 ↳ Saudi Arabia 벤치마크(TASI) -0.9%, 광산(Saudi Arabian Mining) -1.3%, 유가(Saudi Aramco) -0.6% ↳ Houthis의 Khamis Mushait 공군기지 미사일 공격 추가 영향 ↳ 호르무즈 해협 해운량 급감으로 지역 경제·에너지 가격 리스크 증대 • Poland 중앙은행, 향후 1~2분기 금리 동결 전망, 2027년 1분기 이후 인하 가능성 ↳ National Bank of Poland, 정책금리 3.75% 유지 결정 ↳ Dabrowski 통화위원, '1~2분기 동결 최우력, 2027년 1분기 이후 인하 가능성 높음'이라 발언 ↳ 상품 가격·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 지속 평가

권역	요약
	• South Africa 랜드 약세 심화,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로 수입 비용 악화 ↳ ZAR/USD 16.33(-0.4% 선물) ↳ 달러 강세, 유가 상승(약 2%, Saudi 에너지 시설 피해 후속), 귀금속 약세로 수렴 ↳ 순 석유 수입국인 South Africa,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전망 • Russia 경제 침체 심화, 지방 도시도 회복 체감 어려움 ↳ Volga 강변 관광도시 Yaroslavl, 정부 자금 도시 재건에도 불구하고 민간 경제 부진 ↳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개선 체감 부족으로 향후 정치 판단에 영향 가능성
중국 뉴스 3 건	• 신젠타, 홍콩 IPO 기밀 신청으로 최소 \$50 억 모금 추진 ↳ 스위스 종자·농약 회사, 중국 국영기업 Sinochem 자회사로 90 개국 이상 농가 대상 공급 ↳ 홍콩 상장 시 2010 년 이후 최대 규모 IPO 가능성 ↳ 2024 년 상하이 상장 철회 후 재추진 • 중국 부동산 정책 발효, 신뢰 회복까지는 단기간 내 어려울 전망 ↳ 8 월 말 발표 종합 부양책: 주택 판매 규정 개편, 개발자 금융 지원, 모기지 상환 완화 ↳ 6 년 장기 침체로 미판매 주택 400 만 호 누적 ↳ 정책 목표는 매수자 신뢰 회복이나 실제 효과 발현까지 상당 기간 소요 전망
브라질 뉴스 4 건	• 브라질 7 월 소매판매 예상 크게 하회, 고금리로 소비 억제 ↳ 월별 -0.8%, 연간 +1.2%로 시장 예상(각각 -0.2%, +2.15%)을 크게 벗어남(IBGE 통계) ↳ 8 개 추적 부문 중 6 개가 감소로 광범위한 부진 반영 ↳ 고금리로 인한 가계 차입비용 상승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신호, 16 일 중앙은행(Copom) 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책 판단에 영향 예상 • 라틴아메리카 주가·통화 반등, 유가 급등 중에도 연준·중앙은행 결정을 앞두고 신중한 심리 ↳ 전일 하락장 이후 회복, MSCI LatAm 지수 +0.2%, 통화 지수 +0.3% ↳ 유가 급등과 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위험자산 심리는 제약받는 분위기 ↳ 연준(이번 주 정책회의)과 브라질 중앙은행 금리 결정을 앞두고 포지션 방향성 결정 보류
남미 기타 뉴스 6 건	• 페루 7 월 GDP 3.56% 상방 서프라이즈, 건설·무역 주도로 가속 ↳ 연율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56% 성장, 로이터 설문 예상 2.45%를 상회 ↳ 건설 부문 +9.85%, 무역 +6.79% 견인으로 전월 1.75%에서 가속 ↳ 광업(에너지) +0.24% 소폭 증가, 제조업·농업·어업은 약세 • 아르헨티나 2027 년 예산안 제출, 4% 성장·150 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전망 ↳ 내년 인플레이션 21.1% 평균 전망 ↳ 차년도 대선 앞두고 경제 회복세 강조 의도
프론티어 뉴스 6 건	• 나이지리아 8 월 소비자물가 15.39%, 7 월 15.43%에서 소폭 하락 ↳ 식품물가는 19.57%로 전체 평균을 2.18 포인트 상회, 저소득층 생활비 압박 지속 • 나이지리아 Dangote 정유사, 최대 \$500 억 기업가치 IPO 추진 ↳ \$143 억 규모 신규 설비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 ↳ 국제 디젤·제트유 시장의 공급 부족을 배경으로 공모 심리 강화 • 무디스, 방글라데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구역	요약
	↳ 정치 불확실성 완화·외환보유액 재축적·환율 유연성 강화 등을 긍정 평가 ↳ 수입 비용 상승·가스 공급 불안정·의류산업 부진 등 구조적 도전에도 기저 경제의 회복력 유지 판단 • 스리랑카 2 분기 GDP 전년동기 대비 4.2% 성장, 1 분기 5.1%에서 둔화 ↳ 산업 7.3%, 서비스 2.7%, 농업 2.3% 성장, 전 부문 양의 성장 ↳ 이란 전쟁발 고물가 영향 속에도 성장 지표는 시장 예상에 부합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